

기독교교육학은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전영창의 기독교교육의 신념과 인간상을 논하면서 거창고등학교를 한국 기독교학교의 모델로 평가했고, 교육과 목회의 접점 곧 교육목회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단했다.

이번 논문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두드러지는데, 바로 리더 곧 지도자론이다. 한국 영화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명량’과 지난 8월 중순 4박 5일 동안 큰 반향을 일으킨 교황의 한국 방문도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어른 지도자에 대한 열망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약학과 봉사신학은 지도자의 자질을 공통적으로 다루었으며, 신약학의 세월호 사건 진단도 지도자가 져야할 책임성과 관련된다. 더불어 교회사의 한경직목사와 신정순진도사에 관한 글도 지도자론에 해당된다. 기독교교육학의 거창고등학교 전영창선교장의 기여 역시 기독교교육의 지도자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의 다른 주제인 교육목회를 통한 교회의 부흥 역시 지도자의 가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 고신신학은 진정한 리더의 부재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적절한 논의로 사료된다.

-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2014년 가을

송영목드림

엘리야 서신에 관한 연구

A Study in Elijah's Letter

신득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구약학 교수

목차

1. 서언 | 9
2. 엘리야 서신의 정체 | 9
 - a. 상상의 산물 | 10
 - b. 엘리야의 계시 | 11
 - c. 엘리야의 유서 | 12
 - d.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 쓴 서신 | 12
 - e. 엘리야의 친서 | 13
3. 엘리야 서신의 배경 | 14
4. 엘리야 서신의 내용 | 17
5. 엘리야 예언의 성취 | 21
 - a. 국가적 심판 | 21
 - b. 개인적 심판 | 22
6. 결론 | 23



엘리야 서신에 관한 연구

본고는 ‘엘리야의 서신’의 정체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다. 그 서신은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때 엘리야가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서신의 내용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명을 가진 왕이 배교행위를 일삼고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은 국가적으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왕실 침략과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주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직분에 불충한 왕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아하스를 남겨두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다윗 왕조를 통한 메시야 도래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셨다. 엘리야의 서신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과 함께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준다.

* 필자는 고신대학교(B.A) 및 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과(교이학 Th.M과정)을 수료했다.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Drs)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했다(Ph.D).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2004-2005)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2013-2014) 객원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구약 히브리어』,『성경길라잡이』(변종길 공저),『구약정경론』, *The Ark of Yahweh in Redemptive History*,『광야의 반란』이 있고, 역서로는『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사』,『성경지리입문』(한정건 공역),『이집트와 성경역사』(김백석 공역),『고대근동문화』(김백석 공역) 등이 있다.

요약

A Study in Elijah's Letter

주요어

엘리야, 서신, 여호람, 에돔, 다윗의 등불

Abstract

A Study in Elijah's Letter

Prof. Dr. Shin Deuk-il

This article is a study to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author 'Elijah's letter' and to expose its meaning. As far as its source is concerned, it is probable that Elijah himself could have written 'the letter of Elijah' in the reign of Jehoram, the king of Judah. The content and idea of the letter are clear: Jehoram's apostatic behavior to breach the covenant with Yahweh leads him to the punishment. An important duty of the theocratic king is to help the people maintain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Yahweh and to enjoy the promised blessing by keeping the law. Contrary to the task, Jehoram committed sin by leading the people into idolatry. As a result, Edom and Libnah separated from Judah and declared their independence. Jehoram's palace was invaded and plundered by the Philistines and Arabians. It demonstrates that the rule of one straying leader gives pain to the whole community. God punished the unfaithful king for the sake of the spiritual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The fact that Yahweh left Jehoachaz alive in the total plundering shows a divine attribute; namely, that he remembers mercy in wrath. In addition, it confirms that God's promise of the Messiah is always upheld.

God's punishment is applied when Jehoram was alive but its result remains dishonorable. The letter of Elijah which proclaims the punishment against the most wicked king in the history of Judah warns faithful community in all ages to be loyal to the Lord and testifies of the faithfulness of God to his promise and covenant.

Keywords Elijah, Letter, Jehoram, Edom, David's lamp

1. 서언

‘엘리야 서신’이란 표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역대하 21:12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란 말이 있다. 이 사건은 공관본문이 되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었다. 원문에 충실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그에게 한 편지가 도착했다”(A letter came to him from Elijah the prophet)고 번역한다(NASB, NKJV, NRSV, ESV)라고 번역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엘리야 서신’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독자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역사의 진행상 엘리야는 이미 승천하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인데 그가 유다를 향한 예언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또한 비문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도 논란이 된다. 그래서 본고는 문제가 되는 ‘엘리야 서신’의 정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그 내용과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주는 계시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2. 엘리야 서신의 정체

‘엘리야 서신’이 무엇이냐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모든 설명을 소개할 수는 없고 중요한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상상의 산물

커티스(Curtis)는 엘리야의 서신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순전히 상상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남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시대에 분명히 살아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왕하 3:11ff.). 비록 열왕기상 1:17로부터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¹⁾ 그는 이 편지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역대기 21장에서 여호람의 최후를 기록한 동일저자의 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커티스의 견해를 따른다면 성경의 진의성의 크게 훼손될 것이다.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글을 어떤 의도로 엘리야 선지자의 글로 둔갑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논란이 될 이름을 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그 서신의 역사성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설명은 그 편지를 ‘전설’로 보는 것이다. 루돌프(Rudolph)는 “열왕기하 2장과 3:11에 의하면 엘리야는 그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없이 전설이 되었다”고 한다.²⁾ 또한 마이어즈(Myers)는 그 서신을 ‘외경적’(apocryphal)이라고 한다: “신명기기가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 그가 생존했다는 조그만 암시라도 있었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를 다루는 이야기를 빠뜨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직 가능한 결론은 그것이 외경적이라는 것이다.”³⁾ 이 말은 엘리야 서신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의심스러우며 일종의 실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인(Klein)은 역대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가명을 사용하여 이 서신을 썼다고 한다.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엘리야 서신’은 역대기 기자의 신학적 의도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다.

b. 엘리야의 계시

‘엘리야 서신’의 출처 자체를 의심하는 것과는 달리 그 편지내용이 엘리야에게서 왔다고 인정하는 부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계시를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세 유대인 주석가 김기(Kimhi)가 일찍이 그런 주장을 했다: “이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있었다. 여기서 일어난 것은 엘리야가 예언적 영감을 통하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그가 그의 입에 이 편지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편지형식으로 써서 여호람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것이 하늘에서 그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심각한 악행을 깨닫고 겸비해졌을 것이다.”⁵⁾ 엘리야가 승천해서 땅위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 견해의 연장선에서 맥콘빌(McConville)은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엘리야의 편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해하도록 의도했을 것이다”고 설명한다.⁶⁾ 어쨌든

4) R. Klein, *2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Minn.: Fortress Press, 2012), 82.

5) Yitzhak Berger, *The Commentary of Rabbi David Kimhi to Chronicles* (Providence, R.I.: Brown University, 2007), 241-2.

6) J. G. McConville,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4), 199.

-
- 1) E. Curtis, and A. Mads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0), 416.
 2) Wilhelm Rudolph,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J. C. B. Mohr, 1955), 267.
 3) J. Myers, *II Chronicles*, Anchor Bible, 13 (Garden City: Doubleday, 1965), 122.

엘리야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이나 그 서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이해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은 본문이 전하는 상황과 맞지 않다.

c. 엘리야의 유서

‘엘리야 서신’의 출처를 엘리야 자신으로 보고서 그가 승천하기 전에 그 편지를 미리 써 놓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네덜란드 흠풍 역’(Statenvertaling)의 난외주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가 지상에 있을 때 미리 예언을 적었다는 것은 본문의 역사성에 매우 충실한 해석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낳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엘리야가 그 서신을 적을 당시는 여호람의 전체적인 악한 통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다(왕하 1:17). 물론 그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심판을 예언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 될 것이다.

d.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 쓴 서신

‘엘리야 서신’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썼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서 그 서신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편지는 엘리야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썼다고 한다.⁷⁾ 이 주장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라고 할 때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가진 세례요한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이 주장의 논지는 그럴 듯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언약의 기소자인 엘리야와 같이 그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들의 메시지를 ‘엘리야의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7) K. Roubos, *II Kronieken*, POT (Nijkerk: G. F. Callenbach, 1972), 204.

e. 엘리야의 친서

‘엘리야 서신’을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써서 보낸 편지로 보는 견해다. 엘리야는 그 당시 살아있었고, 그 편지는 그의 글이다.⁸⁾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 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호람 시대에 엘리야가 땅위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⁹⁾ 엘리야는 여호람이 섭정 왕으로 통치할 당시에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왕상 1:16-17).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기사(왕상 2)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침공한 사건보다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묘사하다 보니 더 이른 역사적 사건보다 먼저 기록될 수도 있었다. 열왕기의 역사기록이 항상 연대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병든 히스기야의 치유사건(왕하 20)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왕하 18:13-19:37). 또한 물이 없어서 동맹군이 곤경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의 물음에 답한 이스라엘 왕의 신하의 발언이 엘리야가 땅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왕하 3:11).¹⁰⁾ 아마도 그 당시 엘리야는 사역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거리상 엘리사가 가까운 곳에 있었을 수 있다. 더욱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걸음을 물려받기 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왕상 2:3, 5). 엘리야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유다와 관련짓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

8) C. F. Keil &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3 (Peabody, MA: Hendrickson, 1996), 643.

9) 이 주장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떠나서 유다의 한 지역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라는 견해도 있다. R. E. Knuteson, ‘Elijah’s Little-Known Letter in 2 Chronicles 21:12-15,’ *Bibliotheca Sacra* 162 (2005), 23-32. 이 견해는 구약의 진의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10) A. Noordzij, *II Kronieken*, KV (Kampen, H. J. Kok, 1938), 254-5.

없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꾸짖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유다 왕 여호사밧도 꾸짖었기 때문이다(대하 19:2). 아마도 그 시기에 엘리야는 생애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면서 서신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전한 것 같다.¹¹⁾

3. 엘리야 서신의 배경

이 서신의 문맥과 내용이 엘리야가 편지를 보낸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한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¹²⁾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대하 21:11-13). 그가 산당을 세웠다는 것은 여호람은 다른 왕들이 하지 않은 죄를 지을 만큼 악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 이 문장은 그가 산당을 짓는 일까지 했다는 뜻으로 “또한”(gam)이란 말을 쓰고 있다(대하 22:3).¹³⁾ 본문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와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는 동의적 병행법으로 산당건립의 결과가 심각한 것임을 알려준다. “음행하다”(zānā)는 성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11) 선지자가 서신으로 자신의 예언을 보내는 관습은 주전 18세기의 마리문서에서도 발견된다. H. B. Huffmon, ‘Prophecy in the Mari Letters,’ *Biblical Archaeologist* 31 (1968), 107 - 8.

12) “여러 산에”(b'hārē)를 칠십인역과 불가타는 이것을 “בְּהָרֶה”(‘벼아레’)로 보고 ‘여러 성읍’에’로 번역했다. 그러나 루돌프는 마소라 사본이 원본이라고 한다. Rudolph, *Chronikbücher*, 266.

13) Roubos, *II Kronieken*, 203.

우상숭배 행위를 가리킨다(출 34:16; 사 1:21; 호 4:10, 18; 5:3). 그리고 ‘미혹하다’(nādah)는 길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의 종교정책은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개혁적 종교정책과는 대조적이다(대하 19:4). 예루살렘과 유다 왕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길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런 직분적인 임무에 역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대하 21:6).

팔 년 동안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것이다. 이 두 표현은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길’(derek)이란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것은 종교적이자 정치적인 면을 의미한다. 나답과 바아사가 왕이 될 때 이전 왕의 가족을 전멸시키는 숙청사업이 비슷하다(왕상 15:29; 16:11 - 1). ‘아합의 집과 같이’란 국가적 우상숭배를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람이 그렇게 사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왕후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다.¹⁴⁾ 그가 아달랴와 결혼한 자체가 다윗 왕조에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대하 22:10).

또한 “네 아비 집에서”¹⁵⁾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인 것은 여호람이 왕국을 다스리게 되자¹⁶⁾ 처음으로 한 일은 그의 동생들과 방백들을 숙청하는

14) “딸”(bat)을 BHS는 시리아역과 아랍어역을 따라서 ‘누이’('ahōt)로 읽으라고 한다. 그러나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왕하 8:26). 아하시야가 스물두 살에 왕이 되는데 그때가 주전 841/840년이 된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적어도 이십 이 년 전에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말이다. 그 시기가 863/862년이다. Edwin 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3rd rev. (Grand Rapids: Zondervan, 1983), 64-5.

15) (네 아비) “집”(bet)을 칠십인역과 시리아역은 ‘아들’이라고 번역했다.

16) 개역개정판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왕권’을 의미하는 *mamlaka*의 연계 형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치사 *al*과 함께 반란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개역판) BHS가 제시한 대로 ‘왕국’을 의미하는 *mamleket*로 모음을 붙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 개역개정판도 이것을 따랐다.

것을 말한다(대하 21:4).¹⁷⁾ 그는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잠재적 적대세력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숙청을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왕상 3:23-46). 여기에는 반란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척결한 방백들은 아마도 다른 왕자들의 충성스런 신하로서 그에게는 정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여호람이 그런 악한 관행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집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유보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대하 22:7a). 열왕기 본문은 “다윗의 집”이라고 했지만 열왕기 본문은 ‘유다’라고 한다(왕하 8:19). 역대기의 메시지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다’ 보다는 “다윗의 집”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하나님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가 이미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의 당사자를 언급함으로써 그가 언약에서 떠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자초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것은 다윗 자신 때문은 아니고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삼하 7:12-16; 대상 17:11-14). 그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로써 재확인된다(왕상 11:36; 15:4).¹⁸⁾ ‘등불을 주겠다’는 말은 단순히 희망을 뜻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17) 야펫은 본문에 언급된 아들들은 모두 여호사밧의 다른 아내들의 장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S. Japhet,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807. 그러나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18) “그의 자손에게”(*לְבָנָיו*)를 BHS는 열왕기상 11:36과 맞추어서 *לְפָנָיו*(그 앞에)로 수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열왕기하 8:19은 역대기의 표현과 일치한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는 상황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의 통치를 맡기면서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전달한 것이다(왕상 11:34-39).

다윗 자손의 번성과 번영을 통하여 그 왕조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¹⁹⁾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통한 인류구원에 대한 약속 때문에 여호람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4. 엘리야 서신의 내용

여호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셨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는 한글 번역은 당시 엘리야가

19) D. Kellermann, ‘נִיר’, in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 Stuttgart: Kaiser (1986), 624-5. 클라인은 ‘등불’을 탈굼의 번역 (*טַלְגָּם*)을 따라서 ‘통치권’(dominion)이라고 번역했다. Klein, 2 *Chronicles*, 304. 최근에 스튜어트는 ‘등불’을 오역이라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ouglas K. Stuart, ‘David’s “lamp” (1 Kings 11:36) and “a still small voice” (1 Kings 19:12).’ *Bibliotheca Sacra* 171 no 681 Ja-Mr (2014): 8-10. 이것은 탈굼의 특징인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어 *nir* 혹은 그 변형인 *nēr*는 아카드어 *nawārum*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빛나다’ 또는 ‘밝다’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nir*는 ‘푹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즉 푹은 땅을 처음으로 경작할 때 그 흙이 빛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카드어 *nāru*와 아람어 *nīra*는 일차적으로 ‘명예’를 의미한다. 그것이 ‘신의 명예’ 또는 ‘나라의 명예’가 될 때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번역은 ‘등불’ 또는 ‘빛’이고 해석은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구약은 ‘명예’를 의미할 때 *nir*가 아니라 항상 *nīl*을 쓴다. 둘째, 아카드어 *nīru* 도 ‘빛’이란 뜻이 있다(CAD N II, 263). 셋째, 히브리어 *nir*는 *nēr*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삼상 21:17). 넷째, 탈굼의 번역은 아카드어 *nīru*에 대한 반영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 *nir*를 ‘등불’로 이해하고 그것이 ‘왕권’이나 ‘나라’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고 실제적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하 8:33a). 다섯째, 시리아역 페쉬타와 라틴어역 불가타는 ‘다윗의 빛/등불’이란 표현을 일관성 있게 각각 ‘빛’과 ‘등불’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아합의 우상숭배 정책과 맞서 싸운 엘리야는 아달라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지자였다.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역대기 기자가 구약에서 최초의 언약의 기소자인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알리고자 한다.

엘리야의 편지 형식은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단호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표준 예언양식이다(옵 1; 나 1:12). 여기서 하나님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가 이미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다.²⁰⁾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의 당사자를 언급함으로써 그가 언약에서 떠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과 왕실에 대한 군사적인 재앙과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따를 것이라고 한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²¹⁾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대하 21:14-15).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가족에 재앙이 내리는 것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왕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여호람이 당한 국가적인 재앙은 여호람의 통치 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갖게 된데서 이미 나타났다(대하 21:8). 에돔의 독립과정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반란을 통한 독립으로서 여호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에돔이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

20) 마이어즈는 역대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 가운데 하나로서 이 구절을 들었다.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것이다. Myers, *II Chronicles*, 122.

21)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와 불가티는 *nōgef*의 목적어 ‘너’를 첨가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열왕기 본문은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설정 왕이 통치했다고 한다(왕상 22:47). ‘설정 왕’은 정확한 직책이 아니고 ‘지역 장관’(*nissāb*)을 의미하는데 다윗 왕조의 봉신의 성격을 떤다(왕상 4:7).²²⁾ 유다에 대한 에돔의 복속관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왕하 3:9). 여호람은 다시 에돔을 유다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출정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²³⁾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²⁴⁾ 쳤더라”(대하 21:9)는 말은 에돔 지역으로 출정한 여호람의 군대가 먼저 포위를 당했으나 여호람이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공격’(*nakā*)이란 전쟁의 승리나 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냥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아마도 열왕기 본문의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는 말은 유다 군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왕하 8:21).²⁶⁾ 이 문맥에서 역대기 기자는 여호람의 승리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까지”라는 말로써 그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저작시점을 나타내는 이 양식은 역대기 저자의 시대가 아니라 열왕기 저자의 시점이다(왕하 8:22). 에돔이

22) 코건은 열왕기상 22:48(히)의 마지막 두 단어를 명사문으로 보고 ‘지방 장관이 왕이었다’라고 번역했다. Mordechai Cogan,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1), 500.

23) “지휘관들과”(*im-śārāu*)를 BHS는 열왕기 본문을 따라서 지명과 방위격인 ‘사일로’(*sārā*)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śārā*(세일로)로 읽으라고 한다(왕하 8:21). 그렇지만 이것이 자위전환 등의 역대기 기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 구절의 뒷부분에 쓰인 *śārē*(~의 지휘관들)와 혼동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4) 칠십인역은 “그 병거의 지휘관” 다음에 ‘그리고 백성이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더라’(*Kai ἐφυγεν ὁ λαὸς εἰς τὰ οἰκηγάματα αὐτῶν*)는 말을 덧붙였다. 이것은 열왕기하 8:21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25) R. B. Dillard,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Incorporated, 1998), 163.

26) Klein, *2 Chronicles*, 305.

유다에서 독립을 생취할 때 립나도 반란을 일으키고 유다에서 벗어났다. 립나는 유다의 쉐펠라에 있는 레위인 성읍이었다(수 21:13).²⁷⁾ 이미 유다에 배정된 도시라고 할지라도(수 15:24)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주변국의 독립으로 유다의 국력이 약화되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대하 21:10b).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리셨다(대하 24:20). ‘버리다’(āzab)는 언약관계를 포기한다는 전형적인 표현이다.²⁸⁾

그의 배교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에돔과 립나의 독립은 엘리야 서신에 나타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경고가 되었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길을 돌아키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여호람 자신이 당하게 될 탈장 증세를 가진 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병임에는 틀림없다.²⁹⁾

27) 이 도시국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유력한 세 장소가 거명되었다: 텔 에스-사파(Tell es-Safi), 텔 보르낫(Tell Bornat)와 텔 주데이다(Tell Judeidah). Cf. John L. Peterson, 'Libnah,' in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322-3.

28) H. P. Stähli, 'בָּרַע,' in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München; Zürich: Chr. Kais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71), 251.

29) “증병”으로 번역된 *ḥayyim rabbim*은 문자적으로 ‘많은 질병들’을 의미한다. 이 복수는 강도를 증가시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심한 질병’이 된다. F. W. Gesenius, *Hebrew Grammar*, ed. E. Kautzsch & S. A. E. Cowley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124 e. 여기서 ‘심한’은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는 ‘악한’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이 번역자들이 대본으로 삼은 히브리어 본문은 *r̄ym* (‘라임’)이었기 때문이다.

5. 엘리야의 예언 성취

a. 국가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³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16).³¹⁾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사 10:5; 45:1).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던 민족들이었다(대하 17:11).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약탈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유다 왕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으셨다. 그들이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했다”는 것은 나라의 존속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다.³²⁾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그 약탈의 철저함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은 처형을 당했다(대하 22:1). 왕실의 과거 영광이 수치로 바뀌었다. 나라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아하시야)를 남겨두신 것은 다윗의 보좌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하 21:7).³³⁾ 한 왕의 실책으로 인하여 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30) “(알트에 의하면) 여기서 아라비아 사람은 ‘유다 지방에 바로 이웃한 주민’이다. 즉 무엇보다도 그들은 에돔인이자 남유다로 들어와서 정착한 유목민 집단들이다.... 그 후에 그리고 신약에서 그들은 나바티안들이다(마카비 후서 5:8; 사도사 2:11 나바티안들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들; 갈 1:17; 4:25 나바티아인의 지역).” H. P. Rüger, ‘Araber, Arabien,’ in B. Reicke and L. Rost, *Biblisch-historisches Handwörterbuch: Landeskunde, Geschichte, Religion, Kultur, Literat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118.

31) “구스에서 가까운”(*al-yad kūšim*)을 탈굼은 ‘아프리카 국경에 있는’이라고 번역했다

32) “그의 아내들”(*nāšāu*)은 칠십인역에서 ‘그의 딸들’(*tāq̄ Θυγατέρας αὐτοῦ*)이라고 번역되었다.

33) “여호아하스”(*yhō ’āhāz*)는 한 히브리어 사본은 ‘아하시야’(*ḥaz̄hw*)라고 했고, 칠십인역과 시리아역도 ‘아하시야’라고 번역했다. 이 두 이름은 히브리어 세 글자의 순서가

약속이 철회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타락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

b. 개인적 심판

왕궁이 약탈된 후 설상가상으로 여호람은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었다 (대하 21:18). 그것은 여호람 자신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였다. 결국 그는 탈장으로 죽음을 맞았다. 한글번역의 “여러 날 후 이 년 만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옳은 번역이 아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를 만에’라고 해야 한다.³⁴⁾ 즉 그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한 후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를 동안 탈장으로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불경건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메시지를 준다. 열왕기는 그가 죽었다는 기록만 남길 뿐 그의 죽음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았다. 역대기가 백성조차도 애도하지 않는 가운데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기록한 것은 여호람의 사악한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이 조상들에게 분향하듯이 그에게는 분향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사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엄청난 불을 피운 사건과는 대조되는 표현이다(대하 16:14).³⁵⁾ 그 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었으나 이들의 치적은

바뀌면서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같다: ‘여호와께서 불드신다.’ 34) ‘이 년 만에’에서 ‘연’은 ‘날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밈’(yāmîm)을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인 번역은 ‘이틀 만에’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여호람의 만성적 고질병에 ‘이틀’은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년’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yāmîm*을 ‘해’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삿 17:10; 삼상 27:7). 그러나 그것은 ‘이 년’으로 번역한 예는 없다. 여기서는 그것을 ‘이틀’이라고 번역하고 그것이 그의 배에서 창자가 나온 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탈굼은 (이틀 동안) ‘설사로 인한 심한 발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절에서 열왕기 본문에는 ‘삼십 이’ 다음에 ‘해’(šānâ)라는 말이 있다(왕하 8:17). 시리아역도 열왕기 본문을 따랐다.

달랐다. 여호람이 삼십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고 경모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윗 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지는 않았다 (대하 21:20).³⁶⁾ 그는 죽어서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이라는 표현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다른 왕들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했다(대하 14:1; 16:13; 21:1).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이 불경건한 왕이 죽은 후에도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다.

6. 결론

‘엘리야 서신’을 선지자 엘리야가 쓴 편지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다. 엘리야 서신의 내용과 사상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언약을 파기한 배교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통치하는 것이 신정왕국의 왕의 임무이지만 오히려 여호람은 신실한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다. 그 결과로 애돔과 립나가 독립하고 또 엘리야 서신에서 선포된 예언을 따라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다. 한 지도자의 그릇된 통치는 전체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준다. 직분에 불충한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다. 왕실이 송두리 채 약탈당하는 재앙 가운데서도 여호아하스를 남겨두신

35) 한글번역에는 “그를 위해서 많이 분향하였더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칙역은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매우 큰 불을 태웠다”가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불로써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NIV, NRSV, ESV).
36) 20절에서 ‘아끼는 자 없이’(*b'lo hemda*)는 칠십인역에서 ‘영예롭지 않게’(*ēv oûk éptai vō*), 시리아역은 ‘그리워함 없이’(*dl' bqbwrqt*)로 번역되었다.

것은 진노 가운데서 공흘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보여준다. 또한 다윗 왕조 즉 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서도 받지만 죽어서도 그 결과가 불명예스럽게도 남게 된다. 저주스런 질병으로 맞이하는 여호람의 죽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엘리야 서신은 모든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에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참고문헌

- Berger, Y., *The Commentary of Rabbi David Kimhi to Chronicles*, Providence, R.I.: Brown University, 2007.
- Cogan, M.,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1.
- Curtis, E. and A. Mads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0.
- Dillard, R. B.,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Incorporated, 1998.
- Gesenius, F. W., *Hebrew Grammar*, ed., E. Kautzsch & S. A. E. Cowley,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Huffman, H. B., ‘Prophecy in the Mari Letters,’ *Biblical Archaeologist* 31 (1968): 107–8.
- Japhet, S.,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Keil C. F. &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3, Peabody, MA: Hendrickson, 1996.
- Kellermann, D., ‘נָא,’ in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 Stuttgart: Kaiser (1986): 616-626.
- Klein, R., *2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Minn.: Fortress Press, 2012.
- Knuteson, R. E., ‘Elijah’s Little-Known Letter in 2 Chronicles 21:12-15,’ *Bibliotheca Sacra* 162 (2005): 23-32.
- McConville, J. G.,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4.
- Myers, J., *II Chronicles*, Anchor Bible, 13, Garden City: Doubleday, 1965.
- Noordzij, A., *II Kronieken*, KV, Kampen, H. J. Kok, 1938.

- Peterson, John L., 'Libnah,' in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 Roubos, K., *II Kronieken*, POT, Nijkerk: G. F. Callenbach, 1972.
- Rudolph, W.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J. C. B. Mohr, 1955.
- Rüger, H. P., 'Araber, Arabien,' in B. Reicke and L. Rost, *Biblisch-historisches Handwörterbuch: Landeskunde, Geschichte, Religion, Kultur, Literat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Stähli, H. P., 'טוֹבָה,' in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München; Zürich: Chr. Kais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71.
- Stuart, Douglas K., 'David's "lamp" (1 Kings 11:36) and "a still small voice" (1 Kings 19:12),' *Bibliotheca Sacra* 171 no 681 Ja-Mr (2014): 3-18.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3rd rev., Grand Rapids: Zondervan, 1983.

세월호 재앙을 구속하기: 신약의 관점에서

Redeeming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약학 교수

부지

들어가면서 | 33

1. 인재 혹은 천재? | 35

2.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재앙 | 39

3. 인간이 초래한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 | 42

4. 세월호 사건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는 교훈 | 44

나오면서 | 48